

이 력 서

응시회사	-	응시직종	-
------	---	------	---



인 적 사 항			
성 명	이 세 희	생 년 월 일	1998년 3월 25일
현 주 소	Menteng Dalam, Kec. Tebet,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휴 대 폰 번 호	+62 815 14715546 (WhatsApp)	비 상 연 락 망	+82 10-8012-5548 (모)
이 메 일	seheelee2503@gmail.com		

학 력 사 항					
재 학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성 적 (성적/만점)	졸업구분	소재지
2021.03 ~ 2023.02	유한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과	3.6 / 4.5	졸업	경기도 부천시
2014.03 ~ 2017.02	관양고등학교	인문계 (이과)	-	졸업	경기도 안양시

자 격 면 허					
자격면허증명	시행기관	취득년월	자격면허증명	시행기관	취득년월
특수외국어능력평가 마인어 B1(중급)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 05	BIPA 프로그램 1급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2022. 07
HSK 4급	한국HSK사무국	2022. 06	한중상용한자능력시험 5급	중국교육부국가한판	2021. 07

경 력 사 항				
경 력 기 간	근무처	직위	경력내용	소재지
2023.07 ~ 2024.07	스텝인명동 게스트하우스	정직원	고객응대	서울시 중구
2021.06 ~ 2022.09	B마트 강남양재점	계약직	재고관리 및 피패킹	서울시 강남구
2020.11 ~ 2021.02	쿠팡 용인3센터	계약직	재고관리 및 품질관리	경기도 용인

교 육 / 활 동 / 수 상			
기간	교육, 활동 및 수상 내역	기간	교육, 활동 및 수상 내역
2022. 05	열정공약 활동 (최우수상)	2022. 09	HSK 골든벨 (최우수상)
2021. 03 ~ 2022. 11	선배 특강 (쿠팡, 해외사업, 창업 등)	2022. 11	학술제 참여 (중국공예작품제작)

자기소개서

<남을 배려하는 성격과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저는 기독교인 부모님 밑에서 기본적인 양심이나 예의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거짓말 하지마라”, “항상 어딜가도 성실하게 일하고 행동하라”는 말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어렸을때는 약간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하니 힘든 점도 많았었지만, 이러한 교육이 제가 좀 더 크고나서 사회생활하는 데 잘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마다 “너는 말을 참 기분 좋게 한다.”, “한번도 싫은 내색 안하고 일해주는 모습이 고맙다.” 등의 칭찬을 자주 들곤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항상 노력하고, 말 한마디라도 좀 더 듣기 좋게 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을 잘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폭 넓은 마인드와 인내심 —물류센터와 마트>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심이 강한 성격으로 군복무 이후인 23살 때부터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취를 시작하는 동시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4개월 동안 일을 하고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지불해 대학에 입학했고 이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않고 방학 때는 주 5일씩, 학기중에는 주말마다 B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부모의 지원없이 대학생활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교적 몸을 많이쓰는 물류센터와 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두 곳에서 일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들어보고 하루에 2만보 이상 걷는 등의 약간의 피곤함이 있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0mm 박격포 병과로 복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와 B마트의 근무환경은 일반적인 공장처럼 창문도 잘 없고 막혀있는 넓은 창고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3년 가까이 이어진 자취생활과 여러가지 힘든 업무 경험을 통해 정신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않고 생계를 이어나갔고 작은일이라도 꾸준히, 열심히하여 자신만의 성취감을 만들어 버티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다른 나이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성숙하고 폭 넓은 마인드를 가졌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느곳에서 일을 하고 근무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업무를 부여받더라도 배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글로벌 인재 —5개 국어>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외국어 공부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영어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잘하는 편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일본어에 관심이 생겨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매일매일 단어장을 들고다니며 공부를하고 동시에 페이스북에 있는 한일교류그룹에 가입하여 일본인 친구들과 채팅과 전화를하며 1년동안 공부를 했고,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언어교환 어플로 인도네시아인 친구를 알게되었는데, 그 친구와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 친구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어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까지 이어진 인도네시아어 공부는 저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주었고, 저는 군대에서 일과시간 이후에 매일 저녁마다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인도네시아어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현재는 7년이 넘는 기간동안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지인과 번역기 없이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저는 군대를 전역 한 후에 유한대학교 라는 2년제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는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어 공부도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자신있는 외국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도에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주최하는 BIPA 프로그램 1급 과정을 수료했고 2024년 5월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특수외국어능력평가 마인어 과정을 응시하여, B1(중급) 레벨을 합격하였습니다. 제 시험성적이 증명했듯 저는 문어체의 인도네시아어와 구어체의 인도네시아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상태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인도네시아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유통, 물류 업무의 정석을 배우다>

저는 B마트에서 일을 하기전에 4개월 정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파트는 QC(Quality Control) 파트로, 주로 야채나 고기, 각종 냉동식품 등 고객에게 바로 배송되어야 하는 신선상품을 관리했습니다. 제 주 업무는 검품에 필요한 도구가 들어있는 카트를 끌고 팔레트에 쌓인 박스에 들어있는 상품들의 신선도, 재고,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의 업무는 매일 매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일주일에 1~2회는 평균온도 -14도의 냉동창고에 들어가 일을 하는 등 꽤나 고된 환경에서 일을 하는것도 적응이 된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제 파트의 업무가 잠깐 끝나고 나면 입고 파트에 지원을 가서 핸드자키로 팔레트를 옮기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입고, QC, 출고, HUB등 모든 파트의 업무를 한번씩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류유통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추후에 비슷한 업무를 다른곳에서 할 때에도 이러한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쿠팡의 3개월 초기계약을 전부 마치고 퇴사를 했습니다.

<B마트 계약직 —물류, 재고관리의 기초를 배우다>

저는 우아한청년들 이라는 회사에서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마트 물건을 배달받을 수 있는 B마트에서 1년 4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배달을 하는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니고, 오전 6시에 센터에 당일 판매예정인 물건이 들어오면 콜센터의 물건을 센터 안으로 옮겨 종류별로 PDA를 이용해 입고 처리를 하고, 안들어온 물건이나 잘못 들어온 물건 또는 상태가 안좋은 신선식품을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이후에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고객들의 주문 리스트를 쇼핑하듯이 담은 피킹과 마무리로 종류별로 포장해서 비닐봉투에 묶는 패킹 작업도 했습니다. B마트의 패킹 작업은 꽤나 프로세스가 체계적인 편으로 상온의 과자나 음료수는 그대로 비닐봉투에 넣고, 유리병에 들어있는 제품은 당기면 늘어나는 파손방지 종이를 감싸야했고 생리대, 피임기구 등의 제품은 종이봉투에 넣어 포장합니다. 또한 아이스크림과 냉동식품의 경우 손바닥 크기인 아이스팩과 드라이아이스를 하절기, 동절기 기준에 맞는 개수를 넣어 보온팩에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문이 끊겼을 때에는 전수조사라고 하여 상온상품을 제외한 모든 프레쉬 상품,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의 재고를 파악하고 신선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기준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신선상품 QC(Quality Control) 파트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업무는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근 스케줄이 유동적이라 오후부터 밤까지 출근을 할 때에는 WM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반품이나 고객이 클레임을 한 물건을 처리하고, 재고가 맞지않는 물건은 재고를 다시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퇴근전까지 WMS를 통해 시스템 내의 반려처리, 고객 클레임 제품들을 물류센터에 회송처리 하고 콜센터에 다시 담은 업무까지 하곤 했습니다. B마트에서의 업무경험이 제가 마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류, 유통 관련 산업의 기본적인 지식을 쌓게 만들어주었고, 유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익힐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스텝인명동 —호스텔 관리의 모든 것>

저는 스텝인명동이라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1년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호스텔 일을 배우고 시작했고 1년동안 수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객실을 청소하고 침대와 침구류의 커버를 씌우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배웠습니다. 그곳의 대표는 먼저 이틀정도 객실을 청소하면서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어떤 것을 컴플레인 할지 또 방의 구조가 어떤지 학습하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로 인해 제가 프론트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의 니즈를 더 빠르게 파악하고 제대로 응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론트 업무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은 저에게 갖가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요청이나 컴플레인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선임들과 매니저들의 피드백을 받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인 손님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성고객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손님들까지 상대하며 정말 많은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또 한번은 어떤 서양인 손님이 침대가 너무 딱딱하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여분의 이불 2개를 침대위에 깔아주고 직접 누워보라고 요청하며 손님이 만족할때까지 직접 손님의 요청을 들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인인 저의 입장에서서는 침대가 꽤나 두껍고 취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지만, 폭신하고 큰 침대를 쓰는 외국인의 입장에서서는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다양하게 겪으며 저는 타인에 대한 비교적 넓은 이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은 호주에서 온 할머니 나이의 손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여 근처의 병원을 소개해주려 했지만 토요일 저녁의 시간이라 문을 여는 병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색을 한 끝에 근처에 밤늦게까지 여는 동네병원을 찾아 직접 택시를 불러 퇴근시간 이후에 따라가 준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손님은 여권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 그곳의 의사선생님은 영어회화 실력이 조금 부족하여 제가 대신 통역을 해주면서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 할머니의 따님과 손녀분은 연거푸 저에게 감사인사를 하며 병원에 갈 때 결제했던 택시비를 주려고 했지만, 저는 여러 번 거절하며 조심히 가라고 제가 쓰는 앱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아주고 귀가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저는 남들에게 기꺼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일을 할 때 항상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손님을 상대했고 때로는 손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도와주어 많은 손님들은 한국에 팀 문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팁을 주는 사람이 많았고, 아고다, 부킹닷컴 등의 사이트의 리뷰에도 제 이름이 여러 번 오르내리는 등 손님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총괄 매니저는 나이가 75세로 상당히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건강하고 의지가 많으신 분으로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피드백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인생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되었고, 타인을 부드럽게 상대하고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서비스업이라는 업종은 가장 쉬운 업종이라고 언급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세 이사회, 인도네시아어에 도전하다>

저는 2017년도 스무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여자친구가 생겨 단순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했고, 당시에는 2개월정도 공부를 하고 군대에 들어간 이후에 인도네시아어를 제대로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 바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군인 월급이 30-40만원 이었던 상황에 30만원 정도 하는 시원스쿨 인도네시아어 멤버십을 구매하여 1년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저녁마다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자기전에 복습을 하며 기본적인 인도네시아어의 문법, 어휘, 회화를 공부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주말에 쉬는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점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어를 쓰는 다양한 한국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며 다양한 회화 구사능력까지 꾸준히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헬로톡이라는 언어교환 어플을 사용하여, 수많은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늘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었고 이러한 학습이 5년가까이 지속되자 저는 비로소 웬만한 인도네시아어는 모두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도네시아어로 제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고 온라인에서 많은 인도네시아인 친구들을 사귀고 소통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비교적 많지않은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 한국인인 저에게 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주었고, 저도 그런 응원을 받으며 늘 자존감이 올라가고 제 인생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애정이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2022년도 주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BIPA 과정 1급을 수료했고, 2024년 5월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특수외국어능력시험 마인어를 응시하여 1000점 만점에 600점으로 B1(중급) 레벨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아보고 현지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도, 늘 인도네시아의 뉴스 사이트인 KOMPAS.COM을 통해 뉴스기사들을 읽으며 정치나 사회, 경제 등을 공부했고, 온라인에서 교류하는 친구들과 채팅, 전화 등으로 꾸준히 회화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인들과 소통하는데에 있어서 되려 인도네시아에 장기체류를 했지만 현지인과 소통경험이 부족한 타 한국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겸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어에 도전 —대학교 생활>

제가 대학교 입학 후에 처음으로 배우는 중국어는 많이 어려웠지만 기존에 영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등 여러가지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얻은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공부했고 그로 인해 중국어 공부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신입생 시절에는 기초를 다지기위해 펜과 종이를 들고다니며 장소를 불문하고 단어를 쓰며 외웠고 학과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본 학생들 중에 한자를 제일 예쁘게 쓴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어입문 3개월만에 HSK3급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더 큰 의지와 열정이 생긴 저는 학과 성적을 유지하며 HNK(한중상용한자능력시험)5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회화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에 고수하였던 공부 방법인 언어교환

앱으로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채팅을 하며 회화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 들어와서는 학과 교수님께서 만드신 'HSK 골든벨' 시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우수상을 받기 위해 일주일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않고 매일매일 단어를 공부했고 학교를 마치고 친한 동기와 카페에 가서 카페 마감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면서도 휴대폰으로 단어를 보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공부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어 공부도 병행했지만,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평일 오후나 주말에 일을 하면서도 늘 A, B등급 이하의 성적으로 내려가본적이 없을정도로 학교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 전에 HSK 4급 시험을 응시하고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하여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공감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제 MBTI 성격 유형은 ISFJ입니다. 제 MBTI 유형은 업무를 할 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탐정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ISFJ는 유능한 도우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본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꺼이 나누고, 문제와 목표에 공감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업무를 할 때 꼼꼼하고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기위해 항상 더 좋은 방법을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늘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늘 머리를 써서 이런저런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끝낼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만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겪는 모든 과정은 제 업무실력을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하면서 얻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직장에 가나 그 직종의 프로가 되기위해 남들보다 더 깊게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을 하던 항상 업무 결과에 대한 굴곡이 없고 안정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생각지 못한 상황이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방식>

저는 평소에 업무를 할 때에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보고 관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을 때에는 재고관리 및 품질관리 파트에 들어가 정확하고 빠른 업무능력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종 유제품이나 과일 그리고 냉동식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관리했는데, 특히 야채를 검품하는 과정에서는 불량률이나 오재고를 찾는 횟수가 제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만큼 그곳의 매니저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늘 노력했고, 그로 인해 제가 3개월 계약을 마치고 퇴사를 할 때에는 많은 매니저들이 아쉬워하고 더 같이 일을 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는 일을 하면서 성과가 좋은 직원이 받는 특별 인센티브로 20만원을 매달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일을 했던 터라 택배 주문량이 늘어나는 만큼 제 성과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의 업무 경험으로 이미 제가 다양한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B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은 물류센터의 축소 버전의 느낌으로, 물건의 재고는 쿠팡보다 훨씬 적지만 업무는 쿠팡에서 하는 일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쿠팡에서 일을 했던 것처럼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늘상 제가 그곳과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현장이던 저같은 사람이 한명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특별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
명
적
전

<지원동기>

저는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여행을 가봤습니다. 이미 4년전부터 비행기표를 구매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 항공편이 연기되고, 결국에 2023년이 되어서야 겨우 다녀온 여행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고 소중했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만났던 인도네시아인 전 여자친구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시작했고, 현재는 웬만한 인도네시아어 전공자들보다 더 자연스럽게 현지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한국인들보다 더욱 진심으로 인도네시아를 좋아하고, 현재도 인도네시아인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첫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는 인도네시아가 그리워져 올해 1월에 다니던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9일동안 여행을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싶은 꿈도 생겼습니다. 저에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제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항상 저를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모든 인생과 시간을 인도네시아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현재 꾸준히 성장을 하고있는 나라로, 제가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 늙을 때 까지 인도네시아가 더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싶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알바로 시작했던 3년 가량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과 계약직으로 일을 했던 물류센터, 마트 업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궁화유통의 전반적인 업무들을 경험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본적인 업무들을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보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건너가 정착하고 살고 계신 회사 선배님들을 롤모델 삼아 항상 존경하는 마음가짐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입사 후 포부>

저는 어느 직장에 입사하여 일을 하게 되더라도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더라도 늘 업무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업체의 발전을 위해 늘 변함없이 일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인도네시아에 오랫동안 체류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미 제가 한국에서 모은 사비를 써서 자카르타에서 현지인들만 사는 Kos-kosan에서 거주중이고, 길거리 음식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인도네시아에 사는 다른 한국인들처럼 개인기사나 도우미 혹은 좋은 아파트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그곳의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금방 적응하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인도네시아에 살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저만큼 간절한 사람이 또 없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제가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회사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꼭 제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주변 동료, 선배님들과 항상 원활한 업무체계를 이루고 업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면접의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진심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성명 : 이 세 희 (서명)